

SARS, 화학기업 매출영향 괜찮나?

KOTRA, 세계 각국 대책마련 부심 ... 감염조사 강화로 수입통관 지연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 사스(SARS)가 계속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ARS와의 전쟁에 나섰다.

KOTRA에 따르면, 국내기업들도 중국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SARS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피해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외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에서 금속, 화학, IT 분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A상사는 최근 매출이 2002년에 비해 20-3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사는 광둥성 지역의 매장 유동고객이 SARS 발생 이전에 비해 20-30% 줄어 매출 역시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사도 2003년 중국 내 자동차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4월 중순 이후 소폭의 판매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M사는 4월16-17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으나 현지의 일부 바이어가 동양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회사방침을 통보하면서 서면상담을 요청해 방문이 취소됐다.

중국은 4월15-20일 광둥성에서 열린 <캔톤 페스티벌>이 SARS의 영향으로 참가 바이어가 2002년의 10분의 1로 줄었으며, 수출계약액도 크게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상담은 활발해져 2002년에 비해 66.4% 이상 수출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뉴욕의 수입기업들은 SARS 대책으로 인해 통관심사 및 감염조사가 강화돼 통관이 2주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GM은 한국 및 중국 상하이 지역에 대한 미국 기자단 방문계획을 취소했고,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모티브 뉴스도 미국 정부의 권고를 받고 4월21-22일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캐나다의 휴렛패커드는 종업원 1명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자 전체 종업원 200명에 대한 검역조치를 위해 10일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싱가폴 정부는 관광업, 항공업, 운송업을 중심으로 SARS 구호대책을 마련했다. 관광 분야에 1억5500만싱가폴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억3000만싱가폴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베트남은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ARS 확산 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관광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 CNN 등에 광고를 내고 있다. 또 항공기 승객 및 관광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하노이-씨엠립(캄보디아), 호치민-후쿠오카 등 SARS 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의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산업구제를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및 홍콩에 대한 교역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Chemical Journal 2003/04/29>